

도심역사지구의 로컬 거버넌스 형성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북촌의 경우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Forging Local Governance in Downtown Historic Districts, a Case Study of the Bukchon Neighborhood in Seoul, Korea

태운재* · 박소현**

Tae, Youn-Jae · Park, So-hyun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석사과정*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림 1) 북촌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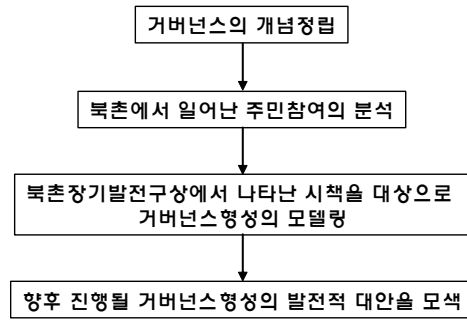
본 연구는 보존개념의 변화와 도시설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역사지구 내 주민참여 도시설계에서 로컬 거버넌스형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계획의 수립과정이 Top-down방식에서 Bottom-Up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주민 개인,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그룹 등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도시계획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도심역사지구인 북촌의 역사환경 보전에 있어 실천적 방안으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방향과 수단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에 진행되어온 규제중심의 도시설계 기법으로는 북촌의 보존과 개발을 조절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촌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북촌가꾸기라는 주민참여 도시설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주민참여 도시설계의 진행과정은 첫째,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 인가?” 둘째, “참여주체가 누구인가?” 셋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누가 참여주체로서 도시계획과정에 참여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를 실현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도심역사지구인 북촌에서 주민참여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주민참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의 내용을 분석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을 파악하고 북촌가꾸기사업에서 일어난 주민참여의 내용을 유형화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촌의 장기발전구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계획안이 시행 될 때 적용될 수 있는 로컬 거버넌스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우중 “우리나라 도시거버넌스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5 도시정보 통권297호 73쪽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정립, 북촌에서 일어난 주민참여의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계속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북촌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형성 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거버넌스(governance) 및 주민참여의 개념

1) 거버넌스의 개념

원래 거버넌스(governance)는 ‘government(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적 대응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관심분야에 따라 ‘국정관리’, ‘네트워크통치’, ‘공치(共治)’, ‘협치(協治)’, 또는 ‘관치(管治)’로도 불리나 최근에는 그냥 ‘거버넌스’라는 용어자체로 통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개념 중 북촌장기발전구상에서 사용한 ‘협치’의 개념으로 사용하며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개념으로 파악한다.²⁾

2) 행정적 변화와 로컬 거버넌스

1988년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 이후 사회적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정을 거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주장과 가치들이 대두되었으며,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이어 1995년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출범으로 기존의 중앙정부통치방식에서 지방자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행정적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로컬 거버넌스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정해진 제도와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³⁾

<표 1> 주민참여의 단계 (권한의 위임정도에 따른 분류)

협치_주민참여		
행정 < 주민	행정=주민	행정 < 주민
행정주도-주민보조	주민,행정이 권한공유	주민주도-행정보조

3) 주민참여 도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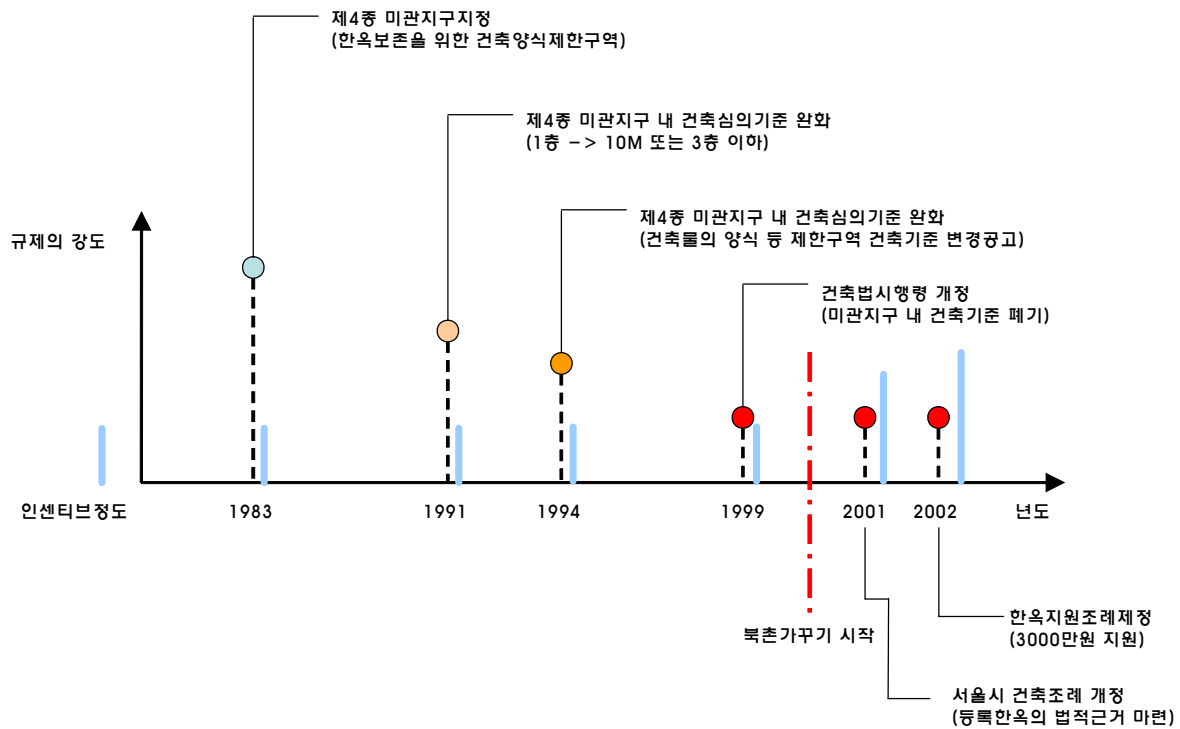
주민의 행정참여, 시정모니터링과 환경운동 등 여러 가지형태의 주민참여 중 도시설계의 영역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주민참여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한다. 도시설계에서 주민참여란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의 계획결정이나 집행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진행하여온 북촌가꾸기 사업을 주민참여 도시설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 이우중 앞의논문.2005 74쪽

3) 강황선,최병대,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시정개발연구원, 2001

2. 북촌의 제도적 행정적 변화양상

1980~2006년 현재까지 북촌에서 일어난 도시설계의 제도 및 행정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그림 3>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각 시기별로 규제의 강도와 인센티브의 정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1991년에 제4종 미관지구심의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세대 및 다가구가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되었고 1991~2000년 까지 연간 30동의 한옥이 멸실되어 갔으며⁴⁾ 이로 인하여 북촌지역의 역사경관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북촌가꾸기가 시작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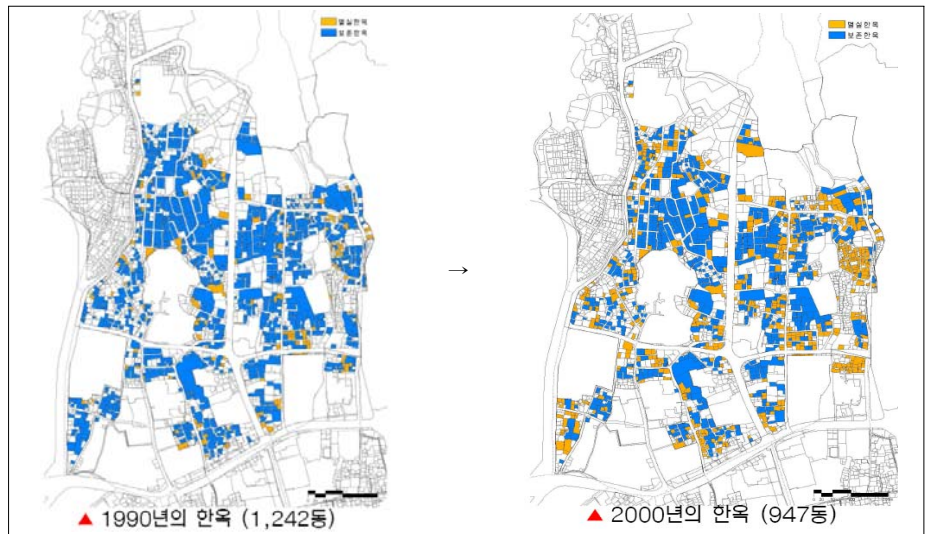


(그림 3) 규제의 강도와 인센티브의 변화양상, 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북촌가꾸기의 성과로서 한옥의 멸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며 2001년에는 10동의 한옥이 2002년에는 4동이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동씩이 멸실되었고 2005년도에는 한옥이 멸실되지 않았다.⁵⁾ 이는 규제일변도로 관리되던 북촌지역의 관리방식이 인센티브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기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정석 『북촌가꾸기 중간평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5

5) 서울시, 북촌 장기발전구상, 2006,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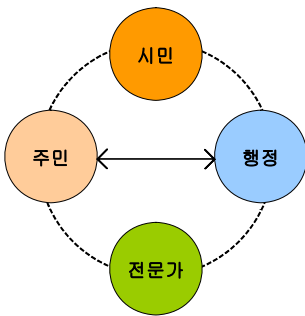


(그림 4) 북촌 한옥의 멸실 현황 _북촌가꾸기 정책토론회 자료, 2005년, 시정개발연구원 규제완화 후 1990~2000년 사이에 일어난 한옥멸실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도면. (10년간 295동 멸실)

3. 북촌에서의 주민참여 분석

1) 북촌가꾸기의 주체

로컬 거버넌스형성을 위한 협력적 계획에서 “참여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로컬 거버넌스형성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주민참여 도시설계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며 시민, 전문가들은 간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된다. 북촌에서는 지역의 여건상 계획팀인 시정개발연구원이 사업시행의 제안 및 관계형성에 주요한 이해당사자로 참여하였다..



(그림 5) 참여주체간의 관계 개념도

<표 2> 북촌가꾸기의 주체 _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구분		종류
직접적 이해당사자	주민	토지 등의 소유자 세입자
	주민조직	(사)북촌가꾸기회 한옥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모임. (한사모) 삼청동번영회
		행정
	계획팀	시정개발연구원
간접적 이해당사자	전문가	북촌한옥자문위원회
	지역단체 /시민단체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이름지기 북촌문화포럼 한옥마을 지킴이 연대 한옥사랑 시민모임

주민역량형성 측면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행정체제 내부에서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민간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에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⁶⁾고 볼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로컬 거버넌스의 중심적인 조정자는 지방정부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북촌가꾸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및 전문가가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⁷⁾ 주민자치역량의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민이 권한을 공유하는 로컬 거버넌스 구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촌가꾸기의 주요한 주체들을 파악하여보면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파악 할 수 있으며 각 주체의 역할은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3> 각 주체의 역할

주체	역할
주민	재산권행사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주민조직	지역의 요구를 제시. 여론을 주도
행정	인센티브지원/ 행정수행.
계획팀/전문가	발전의 방향제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자문역할 수행
지역단체/시민단체	지역의 의견 및 요구사항제시.

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2) 북촌가꾸기의 프로세스

선행연구를 통해서 주민참여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의 정도나 권한의 위임정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단계가 존재하며 그 소통방식 또한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회적 상황이나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류의 체계를 1:1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적적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주민 참여의 정도를 가늠하는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Freely Adapted Burns, Hambleton and Hoggett 1994, Itself Based on Arnstein 1969,

Rungs of Ladder	Attitude of the local authority
Autonomous power	Confrontational
Delegated power	Collaborative
Partnership	Collaborative
Genuine consultation	Enabling
Two-way information	Technical
Tokenism	Manipulation
Spin and bluster	Autocratic

Hugh, Marcus Grant and Richard Guise 『SHAPING NEIGHBOURHOODS』, 2003 에서 인용

6) 강황선, 최병대의 앞의 논문 34쪽

7) 정석 『북촌가꾸기 중간평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5 174쪽

<표 5> Hierachy of political involvement -Milbrath 1965,

구분	참여의 정도
Gladiatorial activity	↑ 높음 ↓ 낮음
Traditional activity	
Spectator activity	
Apathetics	

Michael Fagence,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1977 에서 인용

현재 진행 중인 북촌가꾸기에서는 제도적인 틀과 행정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방식을 통한 주민참여 도시설계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행정과 주민, 행정과 계획가, 계획가와 주민 사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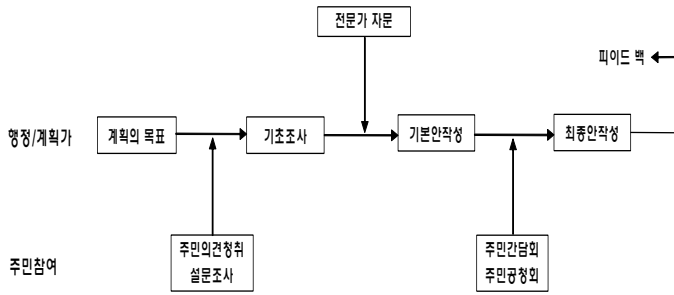
북촌가꾸기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살펴보면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채널”과 “비공식적 장을 통한 소통”의 2가지 소통방식으로 크게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일방향과 양방향의 소통방식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행정과 계획가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큰 영향력을 지닌 요소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 계획과정을 통해서 파악되었다. 북촌가꾸기에서 한옥등록제와 개보수지원사업이 꾸준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주민들과 직접대면을 통한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제공으로 주민과 행정 간에 신뢰의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표 6> 북촌가꾸기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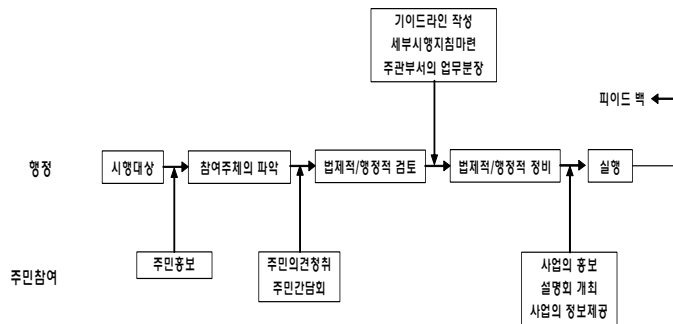
소통방식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	비공식적 장을 통한 소통
양방향	직접대화	전화인터뷰
	간담회	면담
	자문회의	주민회의 및 간담회
	전문가 워크샵	주민과 함께 지역답사
일방향	진정서제출	
	민원접수	

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북촌가꾸기에서 일어나는 사업의 내용을 계획의 형성과정과 실행의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여 보면 <그림 6>와 같이 파악해 볼 수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그 절차는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획과 실행의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의사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호신뢰의 형성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로컬 거버넌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a) 계획과정 (Planning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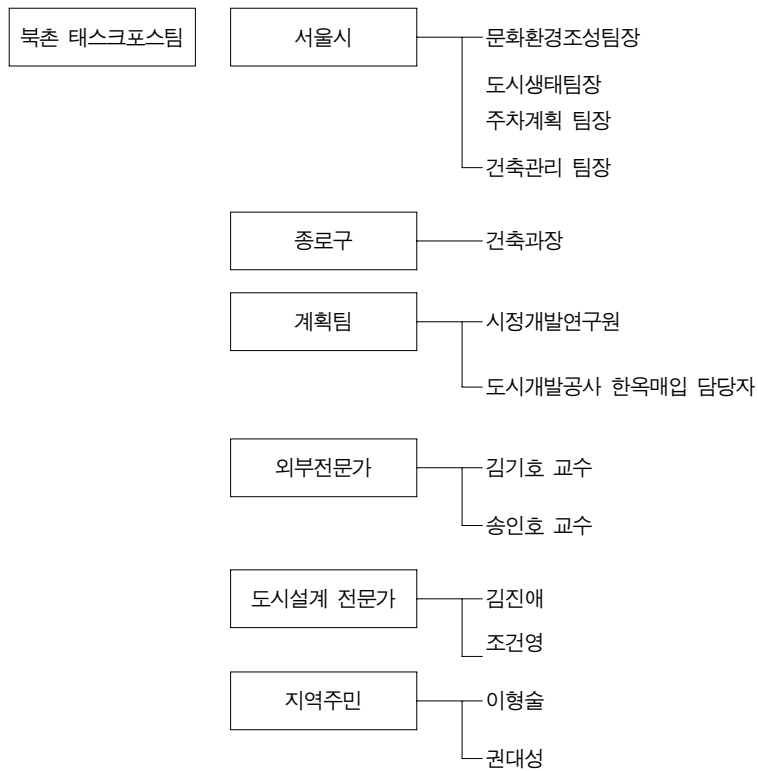
(b) 실행과정 (Acting Process)

(그림 6) 계획과정 및 실행과정 흐름도 _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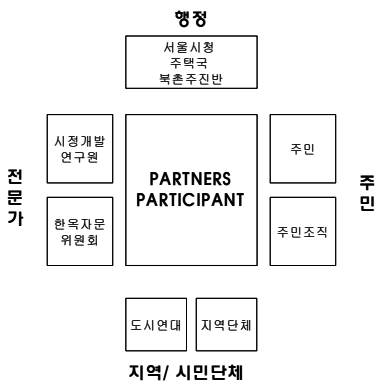
3) 협의체의 구성방식

북촌가꾸기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과 같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공식적 논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획의 진행을 위한 논의기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계획시작 전부터 제시되어 왔으며 그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2000년 2월에 북촌태스크 포스팀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계획의 구상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진행을 하였으며 태스크포스팀은 자문회의의 역할을 하였다.⁸⁾ <그림 7>에 나타난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체들을 계획수립과정에 포함시켜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실제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주민들의 자치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행정가와 계획가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협의체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의 대표성과 포괄성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8) 장옥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2005, 서울시립대학교 150쪽



(그림 7) 복촌태스크 포스팀의 구성 _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그림 8) 복촌협의체 구성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현재 복촌가꾸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의체의 구성을 간단하게 도식화 하여 살펴보면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행정, 주민, 전문가, 지역/ 시민단체의 4부분으로 분류하여 파악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 행정, 전문가가 지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신축 및 한옥지원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형성 정도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촌주민의 71.4%가 주민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⁹⁾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주민참여를 통한 복촌가꾸기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게 된다. 향후 복촌가꾸기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협의구성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촌가꾸기의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창구로써 기존의 주민행정조직인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규정을 강제하는 제재자로서의 역할에서 이해조정자로 그 역할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갈등(Conflict)의 해결방식.

주민참여 도시설계에서 각 주체들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버넌스형성과 운용에 관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로컬 거버넌스에서 의미하는 협력이란 의견을 같이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만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를 달리는 상대와도 협력을 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해결의 생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정석 『복촌가꾸기 중간평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5 119쪽

<표 7> 북촌에서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해결방법 _장옥연 2005 논문 및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참조

갈등의 주체	내용	해결방식	결과
주민 - 서울시 (한옥보존지구 해체 추진위원회)	가회동 일대주민들이 한옥보존지구 해제를 요구 1988	주민→서울시 해제청원서 제출 결기대회	한옥보존지구 일부 해제 1990 4중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기준완화 1991
종로구 - 서울시	종로구가 서울시에 미관지구 해제를 건의 1995	서울시의 미관지구 유지방안 회신	미관지구 유지
	종로구의 현대식 고급주택개발 계획시도 1997	종로구의 계획철회	지역보존 북촌가꾸기로 방향 선회
주민 - 서울시 (가회동 11번지 31번지 일대주민)	북촌가꾸기에 사업 반대(2000년)	주민→서울시 서울시주최 주민간담회 저지 민원접수 서울시→주민 주민설명회 개최 한옥지원조례제정 한옥매입사업시행	한옥등록제 실시_인센티브를 통한 주민참여유도 912동 한옥 중 358 등록 (39.2%) 보조금 지급: 319건 융자 지원: 196건
			한옥매입 사업 한옥매입: 22동 비 한옥매입: 7동
주민 - 서울시	건축허가제한 최고고도지구의 확대지정 미관지구의 확대	서울시→주민 주민간담회 개최	구상안 수립 (실행력을 가진 법정계획이 아님)

북촌지역에서 나타난 주요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88년 형성된 '한옥 보존지구 해체추진위원회'는 서울시에 한옥보존지구의 해제를 요구했으며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1990년 12월에 한옥보존지구의 일부 해제 방침을 발표하게 되고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북촌지역의 역사경관은 급속하게 훼손되게 되었다. 종로구와 서울시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종로구는 1995년에 미관지구 해제건의를 하였고, 1997년에는 북촌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해결방식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북촌가꾸기사업이 시작된 이후 서울시는 인센티브지원을 위한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게 된다. 한옥등록제의 시행으로 서울시와 계획팀은 한옥의 멸실방지와 역사지구의 보전과 재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공간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한쪽의 의견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행정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북촌지역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인 미관지구의 확대나 건축허가제한과 같은 조치들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상안만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2001년에 구성된 한옥심사위원회가 한옥개보수에 대한 심의기능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실제인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강제력과 구속력이 다소 미흡하여 조정과 의견제시의 한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심역사지구의 주민참여 도시설계에서는 정책이나 계획을 실행하는 참여주체간의 협력과 소통의 과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러한 사회적 역량은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해서는 참여주체의 명확한 파악과 포괄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5. 향후연구과제 및 방향

지금까지 진행된 북촌의 주민참여과정에 대한 고찰과 로컬 거버넌스 형성요소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촌의 장기발전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안의 참여주체와 참여방안에 대한 프로세스 설계를 진행하여 북촌지역의 주민참여 도시설계에서 로컬 거버넌스 형성모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결론

1.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심역사지구의 주민참여 도시설계에서 주요한 쟁점은 계획의 실행력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전 및 개발전략의 합의형성과정에 있다고 보고 기존에 시행된 북촌가꾸기의 분석을 통하여 합의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 들을 살펴보았다. 협력과 소통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과 보전 전략을 수립할 때 서로의 주장과 제안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구축을 위한 프로세스의 체계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한계 및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는 연구자가 북촌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실제적인 참여주체의 일원으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선행연구의 문헌조사 같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북촌가꾸기에서 그 주민참여 구성방안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나아가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도시설계를 진행하고자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세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2002
2. 이우중 "우리나라 도시거버넌스의 현황과 발전방안", 도시정보 통권297호, 2005
3. 장옥연,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역사환경 보전 계획과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4. 정석,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II) 북촌 가꾸기 사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0
5. 서울특별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2001
6. 강황선, 최병대, 『서울시정의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 시정개발연구원, 2001
7. 팻치 힐리, 권원용, 서순탁 역, 『협력적 계획』, 한울아카데미, 2004
8. 서울특별시, 『북촌 장기발전구상』, 2006,
9. 정석 『북촌가꾸기 중간평가연구』, 시정개발연구원, 2005 .
10. Michael Fagence, 『Citizen Participation In Planning』, PERGAMON PRESS, 1977,
11. Henry Sanoff, 『Community Participation Methods in Design and Planning』, John Wiley & Son, Inc, 2000
12. Hugh, Marcus Grant and Richard Guise 『SHAPING NEIGHBOURHOODS』, 2003
13. 시정개발연구원, 북촌가꾸기 정책토론회 자료, 2005년,
14. 서울시 주택과, 한옥자문소위원회 회의록. 2003. 8 ~2006. 7